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2호 [투게 제24535호] 주제103(2014)년 5월 2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각하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의 민족적명절인 독립절에 즈음하여 친절한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길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훌륭한 계기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를 친선적인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복리에 부합되게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 아랍 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4년 4월 30일

디마스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중국인사들이 축전과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조선전쟁로병리사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축전과 선물을, 중국 베이징수용림건축장식공정설계유한공사 총경리가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축전과 선물을 로씨야조선전쟁로병리사회 위원장 에스.엘. 크라마렌코와 중국 베이징수용림건축장식공정설계유한공사 총경리 왕수가 4월 9일과 25일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 나라 관계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은 인민의 락원

대대로 수령복, 평도자복을 누리며 참된 삶을 꽃피우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습은 국제사회의 경탄과 부러움을 자아내고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이 나라에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없고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있는 사회가 바로 조선사회이다. 사람들이 실업을 모르며 여성들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나라는 세계에 조선밖에 없다. 네팔신문 《노야 포트빠르와》는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이 오면 조선의 근로자들은 다른 나라에서처럼 생존권보장을 위한 파업이나 시위가 아니라 다채로운 경축행사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준 한다고 지적하였다. 민주공과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서기장은 세금이 없고 무료교육, 무상치료가 실시되는 조선은 인민의 락원이라고 하면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 124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평양 5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 124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1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진행되었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환희에 넘쳐 필승의 신심과 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온 나라 인민은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대회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 일군대회정신을 받들고 불굴의 정신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근로자들의 드높은 혁명적공지와 자부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박봉주동지, 양형섭동지, 오수용동지와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명길 농군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일군들과 중앙일원들, 평양시내 로력혁신자들과 근로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

5.1절경축로동자연회 성대히 진행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력혁신자들 초대

【평양 5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5.1절경축로동자연회가 새로 건설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소에서 1일 성대히 진행되었다. 연회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전초기지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나가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로동계급에게 베푸시는 뜨거운 사랑의 축하연이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계급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혁명명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거듭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10월 공장을 찾으신서 일군들과 방직공들이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포성을 크게 울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창조만이 무성하던 대동강기슭에 몸소 공장을 일떠세워주시고 전후의 제머미우에서도 제일먼저 복구하도록 하시였으며 수십차례나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시면서 공장을 굴지의 천생산지로 꾸러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맡아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며 로동자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깊이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해에도 공장을 찾으신서 로력혁신자들을 친히 만나 고부해주시면서 로동자합숙을 잘 건설해줄데 대한 은정깊은 말씀을 주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은혜로운 사랑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뜨겁게 이어지고있다. 선군명도의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지난해 10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부하신대로 로동자합숙을 자신께서 책임지고 최상의 수준에서 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자들의 정다를 보급자리이다. 세상에선 근로하는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어 극소수 부유한자들이 향락을 누리는 궁전과 호렘은 많어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로동자호텔, 로동자공전은 우리 나라에밖에 없으며 로동자연회라는 말도 태양조선, 경애하는 원수님의 나라인 우리 나라에밖에 없다. 연설자는 연회참가자들과 전체 공장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그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오직 한분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과 명도의 유일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제일결사대, 군위대가 월데 대하여 말하였다. 지금 우리 당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초선에 서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계급이 전국의 앞장에서 달려나갈것을 바라고있다고 하면서 동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이 늘 자기들의 몸 에와닿았고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산다는 긍지와 행복에 넘쳐 생산에서 기적과 혁신만을 창조함으로 로씨 원수님의 믿음과 기대에 더 많은 찬

을 생산하는것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철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서 로동자들에게 공진 같은 따뜻한 생활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고 성대한 연회까지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심장에 새기고 더 많은 찬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 불라는 총정의 결의를 가다듬었다.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선군조성자 근로자들의 전투적 위력을 높이 떨치자

중앙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선임하시니 높이 추대한 크나큰 민족적격과 자부심에 넘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정열 5.1절 124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습니다.

5.1절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비롯한 선군조선근로자들의 혁명적기풍과 전투적위력을 만방에 높이 떨치며 자신의 체력을 마스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근로자들과의 국제적연대를 강화하는 뜻깊은 명절입니다.

회세의 천출명장을 모시어 가장 긍지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5.1절을 맞으며 반체자주의 기치밑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싸워나가는 전세계 근로자들과 전투적연대를 높이고있습니다.

보고 우리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 세계 근로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전진하여 온 자랑스런 승리와 영광의 로망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명도마라 강성국가건설과 국제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전세계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동지들! 조선혁명은 료례없이 간고하고 험난했으나 위대한 수령, 위대한 명도자를 모시기에 우리 근로자들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승고한 력사적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오수 있었습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시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열어놓으셨습니.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언제나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여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대전의 간고한 투쟁에서도 5.1절을 뜻깊게 기념하도록 하시어 근로하는 인민의 새 세상을 일떠세우려는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한층 고조시키시었으며 해방후 첫 5.1절기념 평양시중중대회에 친히 참석하시어 우리 근로자들과 조국건설투쟁에서 힘있게 고무부추기셨습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 그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어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신것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떨치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신 비범한 명도의 손길은 조국땅 그 어디에나

력력히 아로새겨져있습니다. 한평생 근로하는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당과 수령을 신념과 의리로 받드는 가장 혁명적인 근로자로, 부강조국건설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키워주시고 근로인민대중의 무한한 정신력과 단결된 힘을 불러일으켜 자주, 자립, 자주 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은 선군조선의 무궁한 번영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며 어버이수령님은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실것입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혁명의 진두에서 시어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당의 두리에 든든히 묶어주시었으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명도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관점에서 5.1절을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로 기념하도록 하시어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었으며 광범한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 된 자각을 안고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시었음을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근 인성인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강계정신을 창조하고 대조전군의 불화들을 편이 지져올리며 사회주의승리의 년대기, 강성국가건설의 영웅사시를 수놓아오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을 이어가시며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명도에 의하여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 제단으로 일어나게 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 백두산대군으로 존엄과 위용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성스러운 길에 한생을 다 바치시며 후손

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선군조선의 년대기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인민대중을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단결된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 끌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성스러운 혁명명도사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동지께서는 당과 운명을 같이하며 충성을 다 바치신 우리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굳게 믿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명도하고 계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이익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굳게 믿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어 근로인민대중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었습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받들어오시는것처럼 우리 인민들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과 불변불휴의 로고에 의하여 이 땅에 인민의 꿈과 이상이 찬란한 현실로 꽃피고 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바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동지의 사랑과 정은 그토록 짧은 시간에 선군시대를 자랑하며 훌륭히 일떠세우신것만으로도,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밀림수마구락부, 은하과학자거리와 옥류야동원, 류경주강병원 그리고 공원과 유원지들, 남새논밭과 버섯생산기지들을 비롯한 인민의 행복을 위한 창조물들에 뜨겁게 어그러졌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동지께서는 근로대중의 정신력을 기적창조의 근원력으로 보시고 선군명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농촌의 분조장들과 평범한 어로공들을 위한 성대만대회와 열성자회의도 마련해주시고 공장과 농촌, 과학연구기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어 온 나라 근로자들을 위훈의 창조자로 이끌어주고계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서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신것은 우리 전체 근로자들이 사상의 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서 이 땅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서도록 고무추동한 력사적인 사변으로 됩니다.

우리 나라가 우주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서서 백두산대국

의 존엄과 기상을 높이 떨치고있으며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는 비약적인 성과들이 편이 이룩되고있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근로인민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승리로 이 끌어오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명도력의 뚜렷한 과시로 됩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조선혁명의 년대기마다에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마치고 나, 붓으로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온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근로자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영웅적위업을 새겨져있습니다.

해방직후의 폐허속에서, 전후의 제더미속에서 솟아오른 우리 조국이 오늘처럼 정치군사강국의 불패의 위용과 최첨단을 돌파한 우리 식의 CNC기술,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웅장 화려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과 자립경제의 천출위인들의 품속에서 인간 산체계들, 도처에 일떠세워진 현대적인 생산기지와 화려한 사회주의성경을 자랑하며 세계를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고있는 공지없는 성과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타는 주체조선근로자들의 위대한 정신력과 창조력을 융합적으로 보여주고있습니다.

세계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우리 선군조선의 근로자처럼 체제의 천출위인들의 품속에서 인간 자주적존엄을 떨치며 보람차고 긍지로운 삶을 누리는 근로자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

태양으로 온 세계가 인류의 영광으로 우리러 칭송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원수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백두의 선군명장인 경애하는 김정원수동지의 현명한 명도마라 새 세기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여세를 싸워나가는 것은 우리 근로자들이 지닌 최상의 행운이며 크나큰 영광입니다.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 124돐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온 나라 근로자들의 다함없는 호모와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총폭발시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승리로 이 끌어오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명도력을 과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동지의 위대한 선군명도마라 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동지께서는 «우리 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가 더 장군님의 유업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원수동지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원수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시대로, 장군님시대로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동지는 우리 당과 혁명의 단결을 유일중심, 명도의 혁명중심으로서 김일성, 김정일조선행운이며 크나큰 영광입니다.

승리와 영광의 기치입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모른다 드림없는 신념을 간직하고 일심단결 경애하는 원수님을 백옥같은 충정과 승고한 도덕의리로 받들어 모시고 결사옹위하며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며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호전선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투철한 대적관념과 반체제계급의식을 지니고 우리 체도를 좁히는 이색적인 사상과 퇴폐적인 풍조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혁명의 사상문화적침투행동과 시범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새로운 병정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집단적경쟁 열풍으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함으로써 선군조선근로자들의 영웅적기상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쳐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이름 다른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추전망과 잇닿아있는 승리와 영광의 진군입니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라는 당의 전투구호를 높이 들고 농업근로자와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의 근로자들이 올해 총전군의 일장에서 혁신의 불화를 높이 추켜들고나가며 그 불화가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단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단결!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 단결!

결의 목표 수행과 단숨에의 정신

국가과학원 전자공학연구소 집적회로시험공장 부문당위원회에서

국가과학원 전자공학연구소 집적회로시험공장이 결의한 한해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불과 한해라는 짧은 기간에 비약의 성과를 내졌은 이 공장의 자랑찬 성과를 놓고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시대에 태어난 단숨에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 무기인가를 다시금 절감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공정에는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실현의 토대를 이루고 좋은 성과를 거둔 전통도 있다. 공장이 결어는 대중운동의 나날중에서 지난 한해는 격동적인 사실투로 이어졌다.

공정부문당위원회에서 한해동안에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세웠을 때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를 기웃거리었다. 지난 10여년동안에 쟁취하지 못했던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 1년동안에 쟁취하자니 그럴만도 없었다.

하지만 부문당비서 리영철동무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대중운동의 높은 목표를 통해 공정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실력적인 능수, 선군문화의 창조자로 키워주.

초급조직에서는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나갔다. 그러면 이곳 부문당위원회가 2중

결의 목표 수행과 단숨에의 정신

국가과학원 전자공학연구소 집적회로시험공장 부문당위원회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면서 틀어쥐는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숨에의 정신이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이 제기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때까지 공정에서는 그런 첨단수준의 연구사업을 진행해본적이 없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때 부문당비서의 목소리가 그들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였다.

«물론 생소한 길입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단숨에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간다면 세상을 뒤흔드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고 봅니다.»

부문당일꾼의 말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하기에 집적회로용용2연구실 연구사 김수현, 리은철, 공정물성연구원 연구사 한정동동무들은 공장에 새겨진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피타는 사색과 탐구를 거쳐 무대앞에서 연구자를 완성하고 장치제작과 도입까지도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 과정에 과학자들은 단숨에의 정신을 만능의 무기로 틀어쥐며 뜻밖에도 일이었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기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부문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신념의 강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더욱 큰 힘을 넣었다. 부문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 기술

전투장을 쫓게 하는 힘있는 정치사업

경애하는 김정원수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시키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이 선진적강령합기업소와 자강도조선철강단, 사리원시미곡리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강철로 우리 당을 받들자

성강이 끓고있다. 불을 다루는 선진적강령합기업소 로동자들의 심장이 쇠물처럼 끓어오르고있다. 당위원회원들은 사상교양사업을 더 힘있게 벌리며 대중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당원들의 크나큰 믿음에 강철증산으로 보답하자! 그처럼 1년은 날자로는 계산할수 없는 1년, 단숨에의 정신으로 10년을 주름잡는 기적의 1년이었다.

이렇게 1년이 흘러 드디어 공정의 뜻깊은 올해 4월에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열풍을 일으켰다. 그들은 달려온 1년은 지난 시기의 10년맞았었다.

그렇다. 그들의 1년은 날자로는 계산할수 없는 1년, 단숨에의 정신으로 10년을 주름잡는 기적의 1년이었다. 본사기자 채 인철

전투장을 쫓게 하는 힘있는 정치사업

경애하는 김정원수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시키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이 선진적강령합기업소와 자강도조선철강단, 사리원시미곡리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강철로 우리 당을 받들자

성강이 끓고있다. 불을 다루는 선진적강령합기업소 로동자들의 심장이 쇠물처럼 끓어오르고있다. 당위원회원들은 사상교양사업을 더 힘있게 벌리며 대중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당원들의 크나큰 믿음에 강철증산으로 보답하자! 그처럼 1년은 날자로는 계산할수 없는 1년, 단숨에의 정신으로 10년을 주름잡는 기적의 1년이었다.

이렇게 1년이 흘러 드디어 공정의 뜻깊은 올해 4월에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열풍을 일으켰다. 그들은 달려온 1년은 지난 시기의 10년맞았었다.

그렇다. 그들의 1년은 날자로는 계산할수 없는 1년, 단숨에의 정신으로 10년을 주름잡는 기적의 1년이었다. 본사기자 장 철범



신심과 랑만에 넘쳐 5.1절을 뜻깊게 기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사회주의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꿈이 뿌리내린 불패의 사회주의이다.》

승리의 신심뜨들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 있는 각지 근로자들이 5.1절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그들의 열광마당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평도를 총칭하게 만드는 길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는 격동적인 시대의 주인으로서

의 보람찬 삶을 빛내어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러었다.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수도 평양과 지방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공원, 유원지들은 명절을 즐기는 사람들로 흥성이었다.

평양시내 근로자들은 체육유희오락경기를 응원하는 근로자들의 열기번 함성이 울려 퍼지고 흥겨운 춤을 추는 모습이 더 해졌다.

국립연극극장에서는 국립연극단이 출연하는 연극 《백두산

의 너동지》공연이 있었다.

항 일의 너 성 영 운 김정숙동지께서 백두산총대를 역세에 틀어쥐시고 발취하신 루돌프의 수령결사투위정신을 보여 주는 공연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어머니의 슬고한 모범을 본받아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해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게 하였다.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은 대체로 공연으로 명절을 즐기는 각계층 근로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희열과 랑만을 안겨주는 종족들을 보면서 사랑받는 인민의 아름다움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로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긍지를 가슴뿌듯이 절감하였다.

국립교예단 배우들이 만경대유리창 등에서 펼친 교예무대로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민족직접서가 넘치는 장단에 맞추어 남녀로소가 한데 어울려 펼친 흥겨운 춤판, 대동강과 보룡강에서 청소년들이 희열에 넘쳐 보트를 저어가는 광경이 수

도의 명절풍경을 더욱 이채롭게 해주었다.

평성과 신의주, 해산, 강계, 함흥, 사리원 등 각지의 근로자들도 명절의 하루를 뜻깊게 보내는 기쁨과 행복, 부강번영할 조국의 메일에 대한 확신에 넘쳐 있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벌어진 체육경기는 5.1절을 즐기는 로동계급의 환희를 더해 주었다.

은 경기장을 들렀다놓아 복을 울리고 환호를 터치는 속에 축구, 농구, 배구, 마술당기, 씨름

등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영웅적진군을 다그쳐나가는 데서 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과시하듯 《승리의 5월》, 《돌아라라 최첨단》 등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져 경기장분위기는 고조를 이루었다.

사회주의협동농부들에서도 농업근로자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올해에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여 알곡생산에서 통상훈을 부를 열의에 넘쳐 흥겨운 농

악무를 펼치고 다양한 민속유희오락경기를 진행하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탄식 과학기술성과의 앞찬 열매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직접 이바지할 열의에 충만되어 있었다.

각지 근로자들은 기쁨과 행복 속에 5.1절을 뜻깊게 즐기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승리의 진군을 다그침으로써 올해를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일 혁명적열정으로 가슴 불태웠다.

【조선중앙통신】



- 김 정 숙 평 양 방 직 공 장 에서 -



- 개 선 문 에 서 -



- 대 성 산 유 원 지 에 서 -



- 평 양 화 력 발 전 련 합 기 업 소 에 서 -



- 대 안 중 기 계 련 합 기 업 소 에 서 -



- 봉 화 예 술 극 장 에 서 -

제2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 폐막

【평양 5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제2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경기대회에서 모든 선수들은 평시에 편마해온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평양산원이 종합 1등을 쟁취하였으며 조선적십자종합병원, 김남유명원이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하였다.

폐막식이 1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김용진내각부총리, 한광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들과 보건부문의 일군들, 선수들, 청년학생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강화국보건상이 폐막사를 하였다.

그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선수들이 당의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방향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

정에 편마하여온 기술과 완강한 투지로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인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보건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평도를 총칭하게 받들며 경기대회에서 발휘한 혁명적열의로 예방치료를 사업에 전개해나감으로써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명절의 환희를 더해준 특색있는 교예공연

위대한 평도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평도 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이 분방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전체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을 맞이한 수도의 시민들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모란봉공원에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국립교예단의 예술인들이 모란봉공원에서 명절의 환희를 더해 주며 특색있는 야외교예공연을 펼쳐 수도의 시민들을 기쁘게 하였다.

모란봉공원에서

통들이 쌓인 우에 발판을 놓고 올라 여러개의 공으로 북치기 하는 교예에 우, 마치 체육경기대회의 응원대장처럼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를 돋구어 주는 교예배우들의 출연도 습도 시민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다.

바두 다그친 관중과 교감하면서 진행되는 오솔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교감요술에 출연한 판독있는 예술인이 손에 쥐고있던 물건을

순간에 없애기도 하고 날렵하면 서도 우아한 동작으로 없애졌던 물건을 생개기 할 때마다 관중은 찬탄을 이기지 않았다.

야외교예공연의 마가에 펼친 체력교예 《줄넘기》는 누구에게나 청춘의 활력과 열정이 넘쳐 나게 하였다.

경쾌한 음악이 울리는 가운데 예술인들이 거꾸로 서서 줄넘기, 여러번 진퇴동작을 하면서 줄넘기, 여러머리 밧을 쌓은 상

태에서의 줄넘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난도높은 교예동작들을 펼쳐보일 때마다 관중은 찬탄을 이기지 않았다.

선교구역에 사는 한 할머니는 오늘 모란봉에 올라왔다가 희한한 교예공연까지 관람하게 되니 정말 좋다고 한 심원은 젊어지듯 같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모란봉구역에 사는 한 청년은 특색있는 야외교예공연을 보다가 뜻밖에 찬조출연하여 관람하던 사람들을 웃기고 자기도 한

바탕 웃었다고 하면서 당의 은정속에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을 정말 인상 깊게 보았다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대성구역에 사는 한 가정부인은 너무도 흥미진진하여 어느새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렇듯 명절의 환희를 더해준 특색있는 야외교예공연을 보면서 수도시민들은 5.1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본사기자 백성근

란 광 마을이 자랑하는 녀인들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부들이 들려준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얼마전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찾았던 우리는 이곳 탄부들로부터 탄광마을의 《어머니》로 불리우는 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두레전 2월 어느날이었다. 막장에서 일하는 탄부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나갔던 통동종합상점 지배인 류명화동무와 종업원들은 뜻밖의 사실에 접하게 되었다. 제대군인탄부들이 석탄산을 높이 쌓기 전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오직 석탄산업을 위해 애쓰고있다는 것이었다.

류명화동무는 생각이 많았다. 사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탄광으로 자원하여 달려온 제대군인들에는 부모없는 청년도 있었고 멀리 다른 고장에서 온 청년들도 있었다.

(그들의 결혼상을 우리가 차려주면 어떨까.)

다들날 그는 종업원들에게 자기 생각을 터놓았다. 당세포비서 김명영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은 자기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도 그들의 결심을 적극 밀어주었다.

종업원들은 제대군인탄부들의 결혼식을 위해 한가지라도 놓칠세라 친어머니심정으로 지성을 바치겠다고.

결혼식에 필요한 물자들, 첫날옷들과 생활필수품들... 시집갈 딸을 위해 장만해놓았던 가정용품들 들고나오는 종업원들도 있었고 이들이 제대되어 오면 주려고 마련했던 구두를 내놓는 종업원도 있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촉박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날 제대군인탄부들은 물론 새 가정을 이루게 된 처녀들도 부모형제들도 삼정종업원들의 진정으로 고마움을 금치 못하였다.

뜨거운 촉박속에 결혼상을 받아안은 결혼공 김철민동무는 격정을 넘쳐 이렇게 말했다.

《이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것을 안다면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더 많은 석탄을 캐내는것으로 조국과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만이면 결혼상을 받아안은 제대군인탄부들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었다. 그날 제대군인탄부들은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보람찬 대고조전 투에서 영예로운 위훈의 창조자 될 한결같은 결의를 다지었다.

그들이 아니었다.

헤마다 추운 겨울이면 평으로 들어가는 탄부들에게 어김없이 공급되는 따뜻한 공우유에도,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푸짐한 생일상에도, 당에서 그로록 귀중히 여기는 생생동지의 명랑한 모습에도 통동종합상점 종업원들의 진정이 어려웠었다.

탄광마을이 자랑하는 《어머니》.

이 정다운 부름에서 우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녀인들의 모습을 엿볼수 있었다.

신 현 규

총정의 세대가 자라난다

은정구역 영예의 붉은기 은정고급중학교에서

얼마전 우리는 은정구역 영예의 붉은기 은정고급중학교에 대한 취재과정에 학생들을 선군조선의 영군들로 키우기 위해 애써온 이곳 학교일군들과 교원들의 숨은 노력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교원들을 믿고 조국의 미래희망을 맡겼습니다.》

우리와 만난 교장 정영경동무는 김광명학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였다. 그는 학업과 조직생활도 잘할뿐 아니라 지난 기간 주세산대학교 소학반에 다니는 동생 학명을 데리고 입학청원서를 소중히 간직하고 희생된 김철민동무의 집에 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다음날 그들은 보룡강구역 신원동에 있는 용사의 집에 도착하였다. 전후사연을 다 들었고 김철민동무의 아버지인 김현봉동무는 아이들을 품에 꼭 안고 젖어드는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 원수님의 은혜로운 품이 있어 나에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손자들이 한탄하지 않게 해주었다.》

그날 저녁 김현봉동무가 희생된 아버지가 그로록 사랑했던 노래 《불타는 소원》을 연주하는 첼로소리가 하늘가로 은은히 울려 퍼졌다. 그것은 열화같은 사랑과 사랑으로 온 나라를 더욱 화목한 사회주의대강으로 꾸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였다.

교장의 이야기가 끝나자 소년단 지도원인 김미향동무는 덧붙여 말했다. 김광명학생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편지를 올려 지난 1월에 크나큰 영광을 받아있었다고.

이밖에도 학교에는 국가과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주변관리사업에서 모범적인 학생들과 중요대상건설장들에 깨끗한 지성을 바쳐가고있는 학생들이 비롯하여 자랑많은 학생들이 수없이 많았다. 이런 훌륭하고 미더운 새 세대가 경애하는 원수님께 지난 1월에 헌지도를 하신 은정과학자에서 총정의 붉은 꽃을 활짝 피우고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 원수님의 은혜로운 품이 있어 나에게 아들과 며느리

본사기자 김명훈

독자의 편지

후대사랑이 꽃피는 고마운 우리 제도

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정히 받들어가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 일군들과 선생님들의 뜨거운 지성을 전하고싶어 편을 들었습니다.

얼마전 저의 아들 리주성은 김정숙제 1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로록 소원하고 바라는 주세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입학시험을 쳤습니다. 아들과 함께 평양으로 올라온 저는 첫날 시험을 위해 대학으로 간 아들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대학의 일군들이 아들과 함께 온 부모들을 찾는다는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대학에 도착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세 대학에서 이번이 수험생들 가운데서 생활을 지어주었다는 위해 생활상을 지어주었다고 한 일군이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이나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로동당판례》를 높이 부르며 고마운 품, 내 조국을 위해 있는 힘껏 일을 더 많이 하며 자식을 잘 키워 훌륭한 앞날의 역군으로 꼭 내세우겠습니다.

평성시 평성동 53인민반 천경희

2014년 아시 아레스링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평양 5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까자호스판의 아사파나에서 진행된 2014년 아시 아레스링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1일 귀국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16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녀선수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정인순선수는 강한 정신력과 높은 기술,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여 여자메스링 55kg급경기에서 맞닥뜨린 선수들을 모두 누르고 우승을 쟁취하였다.

강진혁선수는 남자자유형

65kg급경기에서 2위를, 윤원철선수는 남자고전형 59kg급경기에서, 한금수, 김만미선수들은 여자메스링 58kg급과 63kg급경기에서 각각 3위를 하였다.

평양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메스링협회 위원장인 리봉남부역상, 관계부문의 일군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온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정 인 순 선 수

